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비올리스트 김남중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남중.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 이어 베를린필하모닉홀 연주회를 앞둔 김남중은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열심인 따뜻한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촬영 | DDK

타임스퀘어에서 아리랑 카네기홀보다 더 떨렸죠

한복·아리랑 알리고자 직접 거리연주
카네기홀·뉴저지주 연주 등 바쁜행보
보육원 등 찾아가는 연주 봉사도 꾸준

비올리스트 김남중(35)에게 올해 11월은 생애 최고의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남중은 남들이 10년 걸려 할 일을 며칠 만에 쓱싹 해치우고 돌아왔다.

11일에는 클래식 연주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처음으로 독주회를 열었다. 뉴욕 콘서트아티스트재단이 주최한 유망연주자 시리즈였다. 12일에는 뉴저지주 유니온시티 초청으로 위안부 기림비 건립 기념전시회에 참가해 연주를 했고, 뉴저지 상원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뉴저지주 문화성장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비올리스트로는 김남중이 최초,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수상자다. 이후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연주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김남중은 "거리공연이 카네기홀 연주보다 몇 배나 더 떨렸다"며 웃었다. "우리 음악과 한복을 미국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미국행은 김남중의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나 다름없었다. 카네기홀에서도 미국 작곡가와 함께 한국 작곡가 안성민의 작품을 연주했다.

사실 김남중의 타임스퀘어 거리공연은 원래 계획에 없었다고 한다. 김남중은 "카네기홀과 뉴저지에서 연주를 하고나니 사람들이 내가 코리언인 줄은 아는데 한복과 아리랑을 전혀 모르더라.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나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타임스퀘어는 전 세계의 별별 예술가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다. 곳곳에서 연주와 퍼포먼스가 벌어진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이날은 일주일 중 가장 인파가 몰리는 일요일 저녁. 그런데 화려한 한복차림의 김남중이 비올라를 들고 나타나자 군중이 홍해가 갈라지듯 하더니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

"가장 '명당'인 중앙자리를 비켜주더라. 아리랑을 포함해 15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들도 많았다.(웃음)"

한복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김남중이 입은 한복은 한복디자이너 이일순씨의 금단제 한복이다. 이 한복을 뉴저지 연주회 때도 입었다. 그런데 뉴저지 연주회와 타임스퀘어 연주 때의 한복치마의 색깔이 다르다. 뉴저지는 빨갛고 타임스퀘어는 파랗다. 거리연주를 위해 차 안에서 한복으로 갈아입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치마를 뒤집어 입은 것이다. 김남중도 이 사실을 나중에 사진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찾아가는 나눔의 연주자… 8년 반 재직한 서울시향 그만 둬

내년도 올해 못지않게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독집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카네기홀에 이어 독일 베를린필하모닉홀에서 연주를 한다. 비올라를 부흥시킨 현대작곡가 힌데미트를 테마로 한 시리즈 연주회도 기획 중이다.

김남중은 나눔과 봉사에 열심인 연주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9년 가까이 재직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나온 것도 문화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육원, 미혼모 시설, 장애인학교 등을 찾아가 비올라의 따뜻한 소리를 들려준다. 김남중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내가 잘 찾아가고 있다"며 웃었다.

김남중은 '프레스토(매우 빠르게)'처럼 살면서 '아다지오(느리게)'를 잊지 않는 연주자다. 마치 온기가 가득 느껴지는 그녀의 비올라 소리를 닮았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담뱃세로 '돈잔치' 벌인 정치권, 예산법안에 경고그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끼워 넣은 '꼼수 입법'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국가 효과 미지수

올해는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가 유달리 많았다. 그 중 흡연자들의 속을 쓰리게 만든 뉴스는 서민증세 논란으로 각종 미디어와 SNS를 달군 담뱃세 인상 소식이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담뱃세 인상분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담뱃세에 손을 대는 진짜 목적이 '증세'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9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국회로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는 점이다. 이에 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경고그림 도입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끼워 넣은 것이 '꼼수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이처럼 공론화하기 곤란한 사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끼워 넣는 '우회 입법'의 통로가 된다면, 자칫 국회선진화법의 악용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안의 경우 앞서 도입한 국가들에서 도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임산부나 어린이 등 불특정 다수가 자극적인 혐오사진을 접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실제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들의 흡연율 변화추이를 보면, 도입 후 금연 효과가 있다고 추론하기 어렵다. 국내 보건당국에서 대표적인 경고그림 도입 사례로 인용하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경고그림을 도입한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흡연율이 22%에서 18%로 4%p 줄어든 데 비해, 같은 기간 경고그림이 없던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30%에서 22%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연간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담뱃세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세수확보 경쟁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는 담뱃세에 손대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담뱃세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건강'이 끼어들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담배 한 갑에 무려 2000원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국민들의 의견개진 기간을 단 4일(휴일 제외 2일)로 한정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양형모 기자

아쿠아플라넷 일산 '티켓 반값'

28일 오후 4시 이후 선착순 500명 대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쿠아플라넷 일산이 1년에 한 번 뿐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미국의 대규모 세일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관람권을 50%할인 판매하는 '웰컴2일산, 블루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28일 오후 4시 이후 입장객에게 수족관과 동물원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 일산' 관람권을 50% 할인한다. '웰컴2일산, 블루프라이데이' 이벤트는 28일 오후 4시 이후부터 매표소에서 선착순 500명에게만 적용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힘찬병원 방문간호 10만례 달성

관절 환자는 수술 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힘찬병원이 이런 수술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10만례를 달성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관절수술을 마치고 귀가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술부위 회복 상태, 재활운동, 보행연습 등을 체크하고 궁금증 풀이 및 심리상담까지 해줌으로써 빠른 회복을 돕는 제도. 힘찬병원의 방문간호는 2002년 11월 병원 개원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 전문간호사 1명과 운전기사 1명으로 구성된 방문간호팀이 매일 전국 60여명의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힘찬병원 방문간호팀이 10만례를 기념해 찾아간 제주시 화북동의 한재숙(74)씨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통증이 없어지면서 병원이 멀어 정기검진을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고 전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이명기 원장

아침마다 관절이 굳는다면 '류마티스관절염' 주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겨울에는 관절이나 근육들이 더 굳게 되어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아침마다 관절이 굳는 듯한 증상이 있다면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활막조직을 침범하는 만성진행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관절손상, 만성통증, 강직과 기능적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관절치료로는 호전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면역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류마티스관절염이 생겨도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류마티스관절은 환자의 90%에서 발병 2년 내에 관절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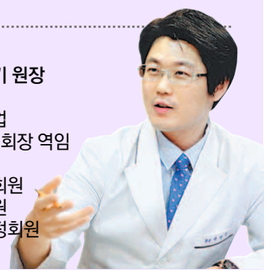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질환의 원인을 유전적인 요인, 환경, 면역, 호르몬 등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나 냉기 등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발병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의 면역을 길러주는 AIR프로그램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그 중에도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AIR프로그램은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치료방법으로 각종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주로 장기인 폐와 심장, 간 등 염증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소부위의 염증을 완화시켜주어 즉각적인 면역체계 활성화를 도와준다.

치료방법은 몸의 순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왕뜸치료와 면역봉독약침을 사용하거나 신정을 보충하여 근본적인 면역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화수음양단과 진수고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초기, 중기, 후기 총 1년간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자가면역질환을 개선해준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양약과 한약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환자 스스로의 관리만으로도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지스한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해있다. 평소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증상을 방치 말고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키기를 바란다.



이지스한의원 이명기 원장

대구한의대학교 졸업
古今會 의료부장 및 회장 역임
韓倫會 회장 역임
대한중경의학회 정회원
심안맥진학회 정회원
한방자가면역학회 정회원



스타벅스 한정판 '실버 카드' 선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2월2일부터 전국 700여 매장(미군 부대, 마장휴게소점 등 총 28개 매장 제외)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특별한 프리미엄 리미티드 에디션 '실버 스타벅스 카드(사진)'를 선보인다. 매장당 15장씩 총 1만여 장.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국내에 선보이는 '실버 스타벅스 카드'는 전 세계 65개 스타벅스 진출 국가 중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선보이는 한정판 아이템이다. 가격은 20만원.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음료 및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10만원이 충전되어 있고, 스타벅스 골드 회원의 혜택과 골드카드 발급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최동우(왼쪽에서 두 번째) 현대자동차 체코공장 법인장이 25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14 체코 국가 품질상' 시상식 후 이르지 하블리첵(맨 왼쪽)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차 체코공장, '체코 국가 품질상' 최우수상 수상

체코 최고 권위의 품질평가상

현대자동차는 25일(현지시각) 체코 수도 프라하 소재 '프라하 캐슬'에서 열린 '2014 체코 국가 품질상' 시상식에서 현대차 체코공장이 최고등급인 '엑설런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체코 국가 품질상'은 산업, 무역업, 공공기관 등 3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의 품질 프로세스, 품질 만족도, 생산성 등 품질경영과 관련된 제반 요소에 대해 인터뷰 및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는 체코 최고 권위의 품질평가상이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업체 최초로 2010년 '스타트 플러스(Start Plus)' 등급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엑설런스'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으며, 3년 뒤 재도전이 가능한 최우수상을 올해 다시 수상함으로써 체코 기업 중 최초로 2회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기록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